

임시 주거시설: 20곳 (공공시설, 마을 회관 등) 383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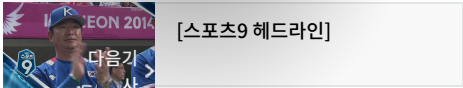
길거리서 여성 신체 불법 촬영한 남성, 시민들이 잡았다

입력 2022.02.23 (21:48) | 수정 2022.02.23 (22:05)

뉴스 9

□ ♥ ↶

📺 + 가 -



[앵커]

한 남성이 택시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

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이 남성을 제압해 경찰에 넘긴 건 주변을 지나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
다.

이에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[리포트]

검은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빨간 불빛이 반짝이는 휴대전화를 든 채 여성 뒤를 서성입니다.

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휴대전화를 여성의 치마 아랫부분으로 들이킵니다.

길 건너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 정 모 씨는 불법 촬영임을 직감했다고 합니다.

[정○○/불법촬영 피의자 검거: "그 남자 손이 자꾸 여자 치마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였
거든요. 그래서 그 장면을 혹시 몰라서 동영상으로 찍어놓고..."]

제보

재난포털

ON AIR

이 시각 헤드라인

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.6%... 19대
보다 3.5%p ↑

이재명 후보 자택, 지금 상황은?

윤석열 후보 자택, 지금 상황은?

‘NLL 월선’ 북한 선원 7명, 북으로 송환
...“항로 착오로 넘어와”



많이 본 뉴스

- 1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.6%...19대보다 3.5%p ↑
- 2 이 “수천,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” 윤 “투표율 기대에 못미쳐”
- 3 “경북·강원 산불 났는데”...‘제주돌불축제’ 어쩌나?
- 4 [특보] 이 시각 산불 상황과 바람 전망
- 5 ‘아이폰SE3’·‘아이폰13 그린’ 공개...시장 평가는?
- 6 ‘NLL 월선’ 북한 선원 7명, 북으로 송환...“항로 착오로 넘어와”

정 씨는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찍은 뒤, 이 남성에게 다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았습니다.

정 씨 전화를 받고 인근에 있다가 온 일행 중 한 명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.

남성은 처음엔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가,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.

["(네가 찍은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해야지!) 네, 죄송합니다."]

[안재진/불법촬영 피의자 검거 : "계속 휴대전화만 계속 달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휴대전화를 주면 지울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주고 그냥 계속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한테 휴대전화를 줬습니다."]

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, 확보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할 예정입니다.

불법 촬영 적발 사례는 재작년을 기준으로 한 해 5천 건이 넘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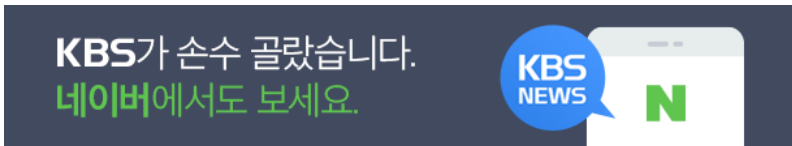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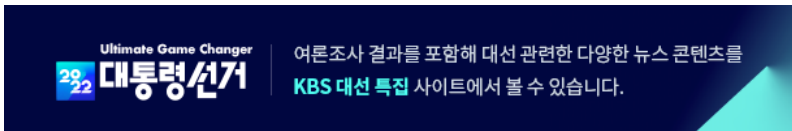
경찰은 불법 촬영의 특성상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, 주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

KBS 뉴스 이예린입니다.

촬영기자:안민식/영상편집:한효정

■ 제보하기

- ▷ 카카오톡 : 'KBS제보' 검색
- ▷ 전화 : 02-781-1234
- ▷ 이메일 : kbs1234@kbs.co.kr
- ▷ 뉴스홈페이지 : <https://goo.gl/4bWbkG>



이예린 기자 eyerin@kbs.co.kr
이예린 기자의 기사 모음 ▶

뉴스 9 전체보기



오늘의 HOT클릭!



